

후두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고문희* · 손영익 · 백정환 · 정한신 · 장전엽

서론

후두 접촉성 육아종은 음성 남용, 인후두 역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후두 피열연골 부위의 염증성 육아종으로서, 이의 치료는 음성치료, 인후두 역류에 대한 약물치료, 보톡스 주사 요법, 수술적 제거 등이 권유되고 있으나 일관된 치료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10년간 본원에서 치료받은 접촉성 육아종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각 치료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치료지침을 세우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1998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접촉성 육아종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는 음성 위생 교육을 받았으며, 초치료로 H2 receptor antagonists(H2RA) 혹은 proton pump inhibitors(PPI)를 이용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H2RA를 약 2개월 간 사용한 이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PPI 치료로 전환하였다.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는 보톡스(Botox®)를 양측 갑상 피열 근육에 각각 2.5단위씩 주사하거나 수술적 제거(laryngomicrosurgery)를 시행하였다.

결과

접촉성 육아종 환자 56명에서 시행된 85건의 치료를 분석하였다. 각 치료는 PPI 44건(초치료 33건, 재치료 11건), H2RA 26건, 보톡스 주사요법 6건, 수술적 제거 9건이었다. 치료 후 육아종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반응군, 50% 이내로 크기가 감소되거나 크기가 증가된 경우를 무반응군으로 정의하였다. 초치료로 PPI를 사용한 33명 중 20명(60.6%)에서 평균 2.74개월의 치료 후에 반응을 보였고, 13명(39.4%)

서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초치료로 H2RA를 사용한 26명 중 10명(38.5%)에서는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16명(61.5%)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초치료로 PPI를 사용한 군에서 H2RA군에 비해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Chi-square test를 이용한 통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91$). H2RA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 중 11명에서 PPI를 이용한 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4명(36.3%)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7명(63.7%)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PPI를 초치료로 사용한 경우에서 재치료로 사용한 경우보다 좋은 치료 반응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162$). 약물 치료에 실패하여 보톡스 주사를 시행한 6명 중 4명(66.7%)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2명(33.2%)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Laryngomicrosurgery를 통한 수술적 제거를 시행한 9건에서는 모두 짧은 기간 내에(평균 1.94개월) 재발이 관찰되었다.

결론

기도삽관 병력이 없는 후두 접촉성 육아종 환자에서 초치료로 PPI 약물 요법을 사용하였을 때 평균 3개월 이내에 60%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으며, 이는 H2RA에 비해 반응이 좋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평균 3개월 간의 약물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는 군에서는 보톡스 주사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적 제거는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높은 재발률을 보이므로 육아종의 크기가 커서 기도폐색을 초래하거나, 다른 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